



‘조길랑’의 여유?

(KIA 조범현 감독)

SK 와이번스와 시즌 마지막 대결을 앞둔 9일 KIA 타이거즈 조범현 감독은 ‘여유 만만’이었다.

최근 성적으로만 보면 조 감독의 표정이 좋을 리 만무했다.

9연승의 무서운 기세로 한국시리즈 직행을 막고 있는 2위 SK를 상대로 전날 3-16의 대패를 당하며 KIA는 4연패에 빠졌다. 한국시리즈를 향한 발걸음이 더해진 상황이지만 이날 조 감독에게는 패장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선수단의 훈련을 점

불안한 선두에도 선수들 긴장 풀기 마사지 나서

“SK 훈련편 장롱수 같은 처진음악 틀어라” 농담도

검하러 일찌감치 그라운드에서 나선 조 감독은 선수들의 움직임을 일일이 살펴본 뒤 주장 김상훈의 스트레칭을 도우며 트레이너 역할을 자처했다.

일찍 경기장을 찾아온 팬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한 조 감독은 신인 안지홍에게는 팬

들에게 사인을 해주라며 느긋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조 감독의 농담에 취해진들 사이에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훈련 시간 경기장에서 트로트 가요가 연달아 흘러나오자 “요즘

무등경기장 음악이 왜 이리나”며 한마디를 한 조 감독은 “SK의 훈련시간에 ‘장녹수’ 같은 음악을 틀어서 훈련 분위기를 차지게 하면 어떨겠나?”고 농담을 해 좌장을 웃겼다.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지만, 조 감독의 농담에는 빙매치를 앞둔 사령탑의 복잡한 심경이 담겨 있었다. /김여울기자 wool@



<전태현>

호랑이 야성 찾는 전태현

지난해 1차지명 불구 부진... 올 9월 들어 ‘위력투’

‘백조를 꿈꾸는 미운 오리 새끼’

2000년 들어 KIA 타이거즈의 1차지명 선수는 광주일고 4명을 비롯해 동상고, 진흥고 등 광주지역 출신들이 독차지했다. ‘군산상고의 에이스’ 사이드암 전태현은 2008년 KIA로부터 1차 지명을 받으며 야구팬들 사이에 화제의 인물이 됐다.

당시 강속구를 앞세운 광주일고의 정찬현이 모교의 대통령배 우승을 이끄는 등 맹활약을 했던 만큼 2008년 군산상고 출신의 전태현의 선택을 놓고 KIA 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었다.

군산상고 출신의 1차 지명이라는 영광은 전태현에게 부담스러운 이름이기도 했다. 특히 당시 KIA의 1차 지명 자리를 놓고 라이벌로 꼽혔던 정찬현과 상반된 1년을 보내

면서 심한 속앓이를 했다.

입단 때부터 비교대상이 됐던 정찬현은 지난해 39경기에 나와 3승2홀드를 챙기며 팬들에게 이름을 알린 반면 전태현은 지난 시즌 단 한 차례 등판을 하는데 그쳤다. 자신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이들의 비교는 더 심해졌고 인터넷에 쏟아지는 비난 글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부상이 전태현을 붙잡았다. 전태현은 일본 마무리 캠프에서 웨이트를 하다 오른쪽 발가락 부상을 당하며 지난해 전지훈련 멤버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발가락 부상으로 투구 밸런스가 흔들리면서 어깨에도 무리가 갔고, 부진한 첫 해를 보내며 올 시즌에도 전지훈련지를 밟지 못했다.

결국 전태현은 자신의 투구폼을 바꿨다.

사이드암에서 스리쿼터로 변신한 전태현은 처음 야구를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리고 지난 9월1일 엔트리 확정되면서 조범현 감독의 부름을 받은 전태현은 5일 두산전에 처음 등판해 세 타자를 연속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자신의 이름을 알렸다.

단 두 경기에 나온게 전부인 패전조 전태현의 입지는 아직 좁다. 팀의 상황에 따라 오 늘이라도 다시 2군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 하지만 전태현은 1군무대에서 후회없이 자신있게 공을 뿌렸다는 것에 만족한다.

팀의 에이스에서 치열한 프로세력의 바닥으로 내려가보기도 했고, 부상으로 힘든 재활을 하면서 야구에 대한 절실함이 느껴졌다. 그 절실함이 전태현을 주저할 수 없게 하는 이유가 됐다.

/김여울기자 wool@

“최후의 30인에 남는다”

양용은·나상욱·위창수 선전 다짐

오늘 BMW챔피언십 개막

‘최후의 30인이 되기 위한 경쟁이 시작된다’

페덱스컵을 놓고 펼쳐지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오프가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다.

10일(이하 한국시간) 밤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인근 레멘트의 코그힐 골프장(파71·7천386야드)에서 열리는 BMW챔피언십은 플레이오프 마지막 대회 투어 챔피언십에 나갈 30명의 선수를 가리는 대회다.

첫번째 대회 바클레이스부터 하위권 선수들이 차례로 탈락하면서 BMW챔피언십에 출전하는 선수는 70명으로 줄어들었다.

플레이오프 점수를 넉넉하게 벌여 놓은 선수들은 느긋하게 점수 관리를 하겠지만 포인트 순위 30위에서 70위 사이에 포진한 선수들은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

메이저 챔피언 양용은(37·테일러메이드)과 재미교포 나상욱(26·타이틀리스트)은 각각 15위와 23위에 올라 컷트 라인 안에 들어 있지만 앤서니 김(24·나이카골프)과 위창수(37·테일러메이드)는 각각 34위와 50위로 밀려 이번 대회에서 대반전을 만들어야 한다.

작년에는 투어챔피언십까지 여유있게 진출, 플레이오프 우승 후보로 거론됐던 앤서니 김으로서의 올해 성적이 다소 실망스럽지만 기회는 남아있다.

플레이오프 점수 1천192점을 쌓은 앤서니 김은 30위(1천281점) 이안 플터(잉글랜드)와 89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이번 대회에서 상위권 성적만 올린다면 투어 챔피언십 진출이 가능하다.

앤서니 김은 작년 밸러라이브 골프장에서

열린 BMW챔피언십에서 공동 3위를 차지하는 좋은 성적을 냈고 2007년 대회 때 코그힐 골프장을 경험했다.

시즌 초반 부진했던 앤서니 김은 7월에는 상위권에 여러차례 이름을 올렸지만 지난 4개 대회에서는 30위 안에도 들지 못했고 60대 타수도 두차례 밖에 기록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작년에도 BMW챔피언십까지는 출전했지만 투어 챔피언십에는 가지 못했던 위창수는 이번 대회에서 1-3위 안에는 들어야 최종전을 기대할 수 있다.

양용은은 투어 챔피언십 출전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PGA 챔피언십 우승 이후 다시 한번 강한 인상을 심어줘야 한다.

양용은은 바클레이스에서 공동 20위라는 준수한 성적을 냈지만 도이체방크 챔피언십에서는 67위에 그쳤다.

PGA 챔피언십 때 보여줬던 정교한 아이언샷과 퍼트 감각이 떨어진 것이 원인이다. 양용은은 PGA 챔피언십에서 76%의 그린 적중률을 기록했지만 이후 2개 대회에서는 70%를 넘지 못했고 그린 적중시 퍼트수도 1.7개에서 1.8개로 높아졌다.

코그힐 골프장에서 한번도 경기한 적이 없는 것도 마음에 걸린다. 양용은은 “메이저 대회 우승 이후 바쁜 일정 때문에 아직 피로가 남아있지만 남은 대회에서 성적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지난 주 도이체방크챔피언십에서 공동 11위라는 성적표를 받아든 나상욱도 살아남아 샷 감각을 살려 생애 처음으로 투어챔피언십에 참가한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다. 상위권에서는 골프왕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플레이오프 1위 자리를 되찾을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연합뉴스



‘골프 지존’ 신지애(21·미래에셋)가 지난 주 최종 라운드의 상층세를 이번 주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된다.

7일(이하 한국시간) 끝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캐나다오픈 3라운드까지 중위권에 머물던 신지애는 최종 라운드에서 무려 8타를 줄이며 순위를 공동 10위까지 끌어올렸다.

11일부터 미국 아칸소주 로저스의 피너클골프장(파71·6천274야드)에서 열리는 LPGA 투어 P&G뷰티 NW아칸소챔피언십

신지애 LPGA에서 안선주 KLPGA에서

시즌 3승 해볼까

(총상금 180만달러)를 앞두고 시즌 3승에 대한 기대를 품는 이유다.

신지애가 캐나다오픈 4라운드에서 기록한 63타는 자신의 LPGA 투어 시즌 최저타 기록이다. 우승을 차지했던 6월 웨그먼스 LPGA 1라운드에서 65타를 친 것이 종전 기록이었다.

캐나다오픈에서는 ‘입맛이 살아나자 쌀 떨어질 격’이 됐지만 3라운드 대회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 초반부터 몰아치기에 나선다면 웨그먼스LPGA 이후 시즌 세 번째 우승을 바라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삼금 선수를 다투다가 최근 주출하는 사이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 미야자토 아이

캐나다오픈서 샷 감각 회복

아칸소챔피언십 우승 기대

(일본)에게 추월을 허용해 4위(122만8천달러)로 내려앉았다. 1위 크리스티 커(미국)의 136만달러는 아직 사정권에 있지만 시즌 막판으로 가는 상황에서 더 벌어지면 곤란하다.

올해의 선수 포인트 부문 역시 97점으로 올(114점), 페테르센(107점), 미야자토(98점)에 이어 4위로 밀렸기 때문에 신지애로서는 반격의 우세가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해 이 대회 챔피언 이선화(23·CJ)가 타이틀 방어에 성공할지도 지켜볼 일이다.

2006년과 2007년에 1승씩, 2008시즌에는 2승을 거두며 ‘코리안 시스터스’의 선봉에 섰던 이선화는 올해 18개 대회에서 10위 내에 든 것이 4번밖에 없다. /연합뉴스

6일 끝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KB국민은행 스타투어 2차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안선주(22·하이마트)가 2연승과 시즌 3승에 도전장을 던졌다.

안선주는 11일부터 사흘간 경기도 광주 그린힐골프장(파72·6천546야드)에서 열리는 KLPGA 투어 LG전자 여자오픈(총상금 4억원)에 출전한다. 올해 KB국민은행 스타투어 1.2차대회를 석권하며 2승을 올린 안선주는 약점이던 퍼트가 좋아져 시즌 하반기에 본격적인 스포츠에 나설 태세다. KB스타투어 2차대회를 우승한 뒤 “그림을 바꾸고 어드레스 때 상체를 세웠다. 과감하게 퍼트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하는 안선주는 삼금과 대상 포인트에서는

‘스타투어’ 2승 여세 몰아

LG전자 오픈 정상 도전

유소연(19·하이마트), 서희경(23·하이마트)에 이어 3위에 머물고 있지만 선수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평균타수(70.33타)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다.

게다가 대회 때마다 기복없는 성적을 내 톱10 입상률(81.82%)도 2위 유소연(75.10%)을 크게 앞질렀다.

데뷔한 이후 늘 정상급 선수로 꼽혀왔지만 신지애(21·미래에셋), 서희경 등에 밀려 한번도 삼금왕에 올라보지 못한 안선주는 상층세를 발판 삼아 1인자에 도전한다는 복안이다.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다음 1위인 유소연(4승)에 1승차로 바짝 뒤쫓게 되고 삼금, 대상 포인트 부문에서도 추격에 속도를 불



일 수 있다. 안선주는 “올해는 지난해보다 꾸준하게 치는 것이 목표”라며 “올해 들어 가장 좋은 샷, 퍼트 감각을 유지하고 있어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고 자신감을 숨기지 않았다. 올해 최강자의 자리를 굳히고 있는 유소연은 지난주 5위를 차지하며 왼쪽 새끼손가락 부상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 털어냈다. 상반기 대회를 마친 뒤 휴식기에 새끼손가락을 다친 유소연은 “목표인 5승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